

## 제8과 돌아온 자만 내 백성이다.

이사야 10:1-23

이사야9장8절-10장 23절까지는 자만에 빠진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누리는 남은 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소상하게 그려지고 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만에 빠진 유다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교만했던 유다는 살인기계로 불리는 앗수르의 위협과 공격을 겪으면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한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

①. 이사야9:8-10:4을 읽고 자만한 유다가 앗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경외의 자리로 내려가는 과정을 확인해보자.

②.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앗수르를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던 하나님은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시점에 오히려 잔혹한 앗수르를 심판하시어 멸망케 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신다.

10:5-19절을 읽고 잔혹한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과정을 확인해보라.

③.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서 유다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10:20-23절을 읽고 유다가 하나님의 앗수르의 심판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구원이 어떤 성격의 구원인지 묵상해보자.

④. 하나님은 앓수르의 심판을 통해 유다의 부정함을 제거한 후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유다를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재건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단순히 앓수르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말하지 않고 오직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앓수르를 의지하던 이중적 신앙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그들이 사랑하고 동경하던 세상나라에서 빠져 나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자를 말한다.

이샤야6:12-13을 읽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의지하는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보자.

⑤. 다음 칼럼을 읽고 언약백성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언약 백성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속해 있는 세상나라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세상나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평화와 기쁨을 상실하고 그 공허함을 세상나라에서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들은 멸망할 세상나라와 함께 멸망의 운명을 맞게 된다.

세상은 화려하고 매력적인 존재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얻는 영광으로, 세속적 쾌락 등으로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이에 하나님은 신자에게 세상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탈출) 할 것을 촉구하신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요한계시록18:4)

여기서 하나님께서 빠져 나오라고 하시는 ‘거기’는 바로 세상나라를 말한다. 구원은 세상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영적 거처를 옮기는 영적인 사건

이다.

즉, 신앙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사랑하던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구원의 실체는 이전에 살던 방식, 이전에 믿던 방식이 심판받았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며,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대탈출’이며 ‘대반전’이다. 몸과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 구원은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던 삶이 고통과 애통함으로 바뀌는 심판의 실재를 경험한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살았던 삶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전의 삶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나 고통도 느끼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탈출이나 반전도 없이 교리만을 받아들인 구원은 허상이며 관념이며 거짓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나라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빠져 나오지 않은 모래같이 많은 신자들을 보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신자가 세상나라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강권함이 불가피하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고지하는데 롯은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지체한다. 이 때 하늘의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이끌어 내며 말한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창 19:17).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세상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는 무참한 고통과 치욕이나 하나님의 크나 큰 은혜이다.